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k.net

주일오전설교 **성령을 따라 살**

로마서 8장은 구원 얻은 성도들의 거룩한 생활 곧 성화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짐을 증거한다. 우리의 성화는 성령의 은혜이다.

[롬 8:1-2]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좇아 행하는 자들] [전통사본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나탈] (전통본문) **해방하였음**이라.

‘이제는 구원 얻은 후를 가리키며, ‘육신’은 사람의 죄성을 가진 몸을 가리킨다고 본다. 구원 얻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요 육신 즉 몸의 죄성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고 진실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에게는 비록 부족과 연약은 있지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이유는 그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주시는 영생을 가리킨 것 같다.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가리킬 것이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죄와 사망의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셨으므로 성도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이다.

[3-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성령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의(KJV)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은 본성의 죄성과 연약성 때문에 ‘어찌 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연약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이 예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며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적 내용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은 이제 육신의 죄성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었다.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좇아 행하는 우리’라는 표현은 구원 얻은 자들을 묘사한다. 이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율법의 요구는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킴으로 얻는 의, 곧 완전한 의(義)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이의를 이루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이루신 이의를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셨다.

[5-8절]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성령(KJV, NASB, NIV)을 좇는 자는 영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본질의 육신과 영은 단지 사람의 육체와 영을 가리키지 않고 몸의 죄성과 성령을 가리킨다.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단지 몸과 영의 대립이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중생한 사람의 영이라도 영육이 결합되어 있는 동안에는 몸의 죄성의 영향을 받아 영의 기능들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있어서 연약과 부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구원 얻은 성도의 내면적 싸움은 육신의 죄성과 성령의 대립이다. 사람은 몸의 죄성을 따라 살면 그 결과는 죽음이지만, 성령을 따라 몸의 죄악된 욕심을 죽이며 산다면 그 결과는 의와 생명과 평안인 것이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 즉 몸의 죄성을 따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사람은 심히 죄악되며 무능력해졌다. 그러므로 본성 그대로의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화는 본성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된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성령 안에](KJV, NASB) 있나니 누

구원 받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의 사역이다. 성령께서는 구원 얻은 자 속에 오셔서 거하신다. 이것은 구약성경에 예언된 복이며 신약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다. 이렇게 성령께서 그 속에 거하시는 성도는 더 이상 육신 즉 죄성을 가진 몸이 불과한 자가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자이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께서 계시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은 동일시된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여기에 삼위일체의 신비가 다시 증거된다. 참 성도는 이미 성령을 받은 자이며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성도가 될 수 없다. 오순절과는 이 점에 대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본다.

[10-11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성령께서 의를 인하여 산 것(조에 ζωή)(생명)(원문, KJV)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신성(神性)으로 그의 영 곧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 계신다.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과 같고 또 어느 날 죽게 될 것이지만,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는 생명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자이시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생명을 시작하시고 유지시키시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문은 “성령은 의를 인하여 생명이시니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서는 부활의 하나님이다. 그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성도들 속에 계시다면 성도들은 장차 그 영으로 인해 부활할 것이다. 성도의 부활은 확실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빈 무덤을 남기고 부활하셨듯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도 마지막 날 빈 무덤을 남기고 부활할 것이다. 성도들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 일을 보증하신다. 성도들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12-1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진 자로되 육신에게 저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성령)(KJV, NASB, NIV)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구원 얻은 우리는 죄성을 가진 몸이 있어 몸의 육구대로 살아야 할 자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은혜

의 하나님께 빛을 진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주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셨고 새 생명을 주셨다. 지옥 갈 죄인을 천국 가게 하신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큰 빛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빛을 진 자이다.

성도는 죄성을 가진 몸의 육구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은 가상적 경고이다. 이 말씀은 중생한 성도가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말씀이 사람이 율법을 행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듯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은 하나의 경고이지 구원 얻은 성도들이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택한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시는 것이다(요 6:39).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신 모든 사람은 영광에 이를 것이다(롬 8:30). 그러나 성도가 계속 죄를 짓는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으로 몸의 죄악된 행위들을 죽여야 한다. 그것이 성화이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성화를 위해 우리 속에 거주하신다. 우리의 성화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성을 극복하는 과정이다. 14절의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은 13절의 ‘영’이라는 말이 성령을 가리킴을 보인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이다. 성도의 거룩한 생활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화를 위해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의지해야 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들 속에 남아 있는 몸의 죄성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그들을 감동하시고 지도하시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도우신다. 성화는 성령의 은혜이다.

둘째로, 이렇게 구원 얻은 성도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1절). 참으로 중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몸의 죄성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와 선을 행하기를 힘쓸 것이며, 비록 그들에게 실수와 부족이 없지 않을지라도,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이다.

셋째로, 성화(聖化)는 성도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몸의 죄성을 죽임으로써 조금씩 이루어진다. 성화는 단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이다. 갈라디아서 5:16,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물론, 우리도 힘써야 한다.

주일오후설교 **모세를 부르심**

[출 3:1-2]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렘에 이르매 여호와와 사자가 떨기나무가시덤불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가시덤불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미디안 족속은 보통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아들 미디안의 자손들을 가리킨다(창 25:1-6).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시기 위해 40년을 기다리셨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사람 보기에 더딘 것 같을 때가 있다. 모세는 그 기간 믿음과 겸손과 인내의 훈련을 받았을 것이다. 본문에서 여호와와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된다(4, 5, 7절). 떨기나무(관목)는 진달래같이 원줄기와 가지들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은 나무를 가리키는 말이다. 본문의 떨기나무(세네)는 검은 딸기덤불 같은 가시덤불이라고 추정된다(BDB).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으나 타서 없어지지 않는 신기한 광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할 것이다. 가시덤불이 평범한 것이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평범한 민족이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불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신기하게도 망하지 않고 있었다.

[3-4절]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시덤불이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가시덤불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모세를 알고 계셨다. 실상 그는 모든 사람을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부르신다. 그는 후에 엘리 제사장 때 성소 안에서 사무엘을 부르셨다(삼상 3:10). 또 그는 후에 자신을 핍박하던 사울을 일꾼 삼으시려고 부르셨다(행 9:4).

[5-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아비)의 하나님(이)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하나님께서서는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은 어디나 거룩한 곳이다. 흠과 먼지가 묻은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적이고 죄악된 생각과 생활방식을 버리라는 뜻일 것

이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들은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서는 또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건한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이시다. 기독교는 하루아침에 생긴 종교가 아니고 인류의 역사 시초로부터 계시된 종교이다. 경건한 열조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고 그들에게 계시된 진리들이 있었다. 성경은 그 계시들의 기록이다. 모세는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었다.

[7-8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고난)을 정녕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감독)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憂苦)고통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이르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고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동정하시며 긍휼히 여기셨다.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에서 비롯된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은 영광스런 천국을 예표하였다.

[9-10절]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고,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내시기를 원하셨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실 것이다.

[11-12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관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오스)니라.

모세는 자신의 무자격함과 무능력함을 느끼며 대답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무자격하고 무능력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13-14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

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물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사람의 이름은 그의 인격 곧 그 자신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셨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원어(에에)는 ‘나는 있다’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만든 자가 아니고 처음부터 그냥 계신 분이시다. 그가 천지만물을 만드셨고 인류의 역사와 이스라엘과 택자들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다.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본절은 앞절에서 말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과 ‘여호와’라는 말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인다. ‘여호와’라는 말은 ‘있다’라는 원어(히야의 고어(古語)인 하와)에서 나온 말이다. ‘여호와’라는 명칭은 영원자존(自存)하시고 불변하심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16-18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眷顧)하여(파카드)[돌아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젃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19-22절]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치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니찰텔 מִצִּילֵי) [빼앗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구출은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로만 가능한 일이다. 그것이 다음 몇 장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이웃 사람들에게서 은패물과 금패물과 의복 등을 구하여

취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한 종살이, 즉 그들의 고생과 학대받음에 대한 보상과 같을 것이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구원을 주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스스로 계신 자,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가 맨 처음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가 만드신 세상을 홀로 섭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하신 때 그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셨다. 그는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부르셨고 그와 함께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의 능력으로 그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는 만세 전에 택하신 자들을 하나도 남김 없이 다 구원하시는 구주 하나님이시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하나님의 공휼과 언약에 근거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보셨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 우고(憂苦)를 아셨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돌아보셨다. 또 하나님의 공휼은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에 근거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셨다. 우리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공휼에 근거하였다. 디모데후서 1:9,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인물을 부르셨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준비되었다. 미디안 광야는 그에게 믿음의 훈련장, 겸손의 훈련장, 인내의 훈련장이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꾼을 부르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소관이다.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마가복음 3:13-15,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고린도전서 12:4-6,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에베소서 4:11-12,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전도와 목회와 교회 봉사의 일들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준비된 자들을 부르실 것이다.

★ 우리나라의 평안을 위해 또한 이념적 안정을 위해, 특히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잘 지키기 위해 기도합니다.

○ 사도행전 강해. 3판. 236쪽. 2,000원.